

2021년 11월 10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기자재정책팀 팀장 이종태(044-201-1891), 사무관 김보민(1895) / 제공일: 11월 10일(총 3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2022년 2월까지 요소비료 공급 가능, 농기계 공동이용 등 지원으로 농가 불편 최소화 [동아일보 11월 10일 보도에 대한 설명]

- 비료 : 업체 요소 재고량 증가, '22.2월까지 요소비료 공급 가능
 - 농기계 : 요소수 필요 트랙터 4.6% 수준, 농기계 공동이용 지원
- < 동아일보 11월 10일 <농가도 비상, 11월 밭갈이 앞두고 트랙터 멈춰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 >



언론 보도내용

- ☐ 비료업체의 요소 품질 사태 및 사재기 행렬
- ☐ 요소수 품귀 사태로 트랙터가 멈춰, 농가에도 비상



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

< 1 > “비료업체의 요소 재고도 빠르게 줄고 있다. 이에 따라 요소를 원료로 쓰는 비료 생산이 줄어 품질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.”에 대하여

□ 비료업체의 요소 재고 급감, 요소를 원료로 쓰는 비료 생산이 줄어 품질 사태 발생은 사실과 다르며, 오히려 비료업체의 요소 재고*는 증가하였고, '22.2월까지 공급부족 현상은 없을 전망입니다.

* 비료업체 요소 재고량 : ('21.10월 말) 19천톤 → ('21.11.8. 현재) 27천톤 수준

○ 금년 말까지 동계작물 재배 등에 필요한 요소비료 수요량(일부 복합비료 포함, 18천톤)보다 이미 확보한 비료 완제품 물량(35천톤)이 많고, '22.1~2월 공급 가능물량(95천톤)도 예상 수요량(44천톤) 대비 많습니다.

□ 다만, 요소의 원활한 원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협의 비료 구매계약 방식을 변경하여 구매가격에 비료 원자재가격 인상분을 연동하도록 조치하였고, 수입선 다변화, 원료구매자금 확대 및 할당관세 적용 등을 재정당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.

○ 「비료 수급대책 TF」를 운영하여 원자재 수급 상황 관리, 비료 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

* 농식품부(단장 차관), 농진청, 지자체, 농협, 비료 관련 협회 등으로 구성

< 2 > “요소수가 없어 며칠 전 트랙터를 멈춰 세웠습니다. 곧 땅이 얼어버릴 텐데 겨울 농사를 망치게 생겼어요.”, “고 씨는 ”농협에도 요소수 재고가 없고 인터넷은 믿을 수 없어 할 수 없이

농사일을 전부 멈췄다“고 하소연했다.”, “요소수 품귀 사태가 지속 되면서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다. 2015년 이후 생산된 75마력 이상 트랙터와 콤바인을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요소수 공급이 급감하면서 농기계들이 멈추고 있는 것.”에 대하여

□ 요소수가 2015년 이후 생산된 75마력 이상 트랙터와 콤바인에 필요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.

○ 요소수 주입이 필요한 농기계는 '16년 이후 생산된 트랙터, 콤바인(75마력(56kw) 이상)이 해당됩니다.

□ 또한, 현재 농가에 보급된 요소수 필요 농기계는 트랙터 17천대, 콤바인 10천대 수준이며, 이는 농가 보유 전체 트랙터(383천대) 및 콤바인(79천대) 중 각각 4.6%, 12.5%로 낮은 수준입니다.

○ 콤바인의 경우 벼 수확이 종료됨(진도율 99.8%, 11.8 기준)에 따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며, 트랙터의 경우 연말까지 주요 농작업은 베일러 작업(사료용 볏짚 수거)으로, 통상 11월 말에 종료됩니다.

○ 베일러 작업(사료용 볏짚 수거)에 필요한 트랙터가 부족할 경우에는, '16년 이전 생산 75마력 트랙터 보유 농가와 연계하여 농협의 농작업 대행 서비스*를 지원하고, 전국 시·군에서 운영되는 임대사업소 농기계**를 우선 지원토록 조치하였습니다.

* 농협 농작업 대행 서비스 가능 트랙터(75마력(56kw) 이상) 1,739대

** 보유 트랙터 1,220대 중 요소수가 필요 없는 트랙터가 1,166대(96%)